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가 기업의 조세회피를 줄이는가?: 순응적 조세회피와 비순응적 조세회피에 관한 분석\*

기은선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부교수

김효은

울산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조교수

## Does Book-Tax Conformity Reduce a Corporate Tax Avoidance?: Analysis of Conforming Tax Avoidance and Non-conforming Tax Avoidance

Eun-Sun Ki<sup>a</sup>, Hyoeun Kim<sup>b</sup>

<sup>a</sup>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sup>b</sup>Department of Accounting,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Ulsan, South Korea

*Received 28 February 2022, Revised 18 March 2022, Accepted 25 March 2022*

###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book-tax conformity on conforming tax avoidance and non-conforming tax avoidance.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uses financial data from 1996 to 2019 of 34 countries. We regress conforming or non-conforming tax avoidance on book-tax conformity. We use the book-tax conformity measure developed by Atwood et al. (2010), the non-conforming tax avoidance measure developed by Desai and Dharmapala (2006), and the conforming tax avoidance measure developed by Badertscher et al. (2019).

**Findings** - First, book-tax conform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non-conforming tax avoidance. Second, book-tax conformity is not statistically related to conforming tax avoidanc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While prior research focuses on the effect of book-tax conformity on earnings quality, we examine on the effect on tax avoidance. Furtherm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types of tax avoidance strategies that tax authorities should pay attention to. Our results imply that tax authorities in countries with high book-tax conformit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non-conforming tax avoidance than to conforming tax avoidance.

**Keywords:** Book-Tax Conformity, Conforming Tax Avoidance, Non-Conforming Tax Avoidance

**JEL Classifications:** C12, C83, D40, L15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A8045454)

<sup>a</sup> First Author, E-mail: [eski@kangwon.ac.kr](mailto:eski@kangwon.ac.kr)

<sup>b</sup> Corresponding Author, E-mail: [hekim@ulsan.ac.kr](mailto:hekim@ulsan.ac.kr)

© 2022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 I. 서론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도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순응적 조세회피(conforming tax avoidance)와 비순응적 조세회피(non-conforming tax avoidance)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순응적 조세회피'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모두 낮추는 거래를 통해 세부담 최소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말하는 반면 '비순응적 조세회피'는 회계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과세소득만 낮추는 거래를 통해 세부담 최소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말한다. 순응적 조세회피는 과세소득의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 반면 비순응적 조세회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개념상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증대됨에 따라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차이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장지경, 2014). 장지경(2014)은 Atwood et al.(2010)에 따라 세전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평균제곱근오차(RMSE) 수치를 이용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를 측정하였는데,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RMSE수치가 급격히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논문은 이러한 분석결과가 세무조정 증대에 대한 회계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K-IFRS 도입 이후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괴리 심화, 즉 일치도가 감소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일치시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례로 EU는 재무보고기준으로 IFRS를 채택하는 것과 더불어 연결과세기준으로 IFRS를 채택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나, 일부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Hanlon et al., 2008). 우리나라 역시 IFRS 17 시행을 앞두고 세법이 기업회계의 개정사항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 동안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도가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이들은 대체로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도가 회계이익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Atwood et al., 2010; Blaylock et al., 2015; Wartin et al., 2014),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 유일한 예외가 구자은(2013)의 연구로 구자은(2013)은 8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의 기업이 조세회피수준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구자은(2013)의 연구는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도가 비순응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순응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지 않다. 만약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비순응적 조세회피는 줄이지만, 순응적 조세회피는 늘린다면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조세회피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순응적 조세회피와 비순응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Compustat Global Vantage file에서 추출한 34개 국가의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도가 기업의 순응적·비순응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회계이익-과세소득의 불일치도는 세전이익의 변동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당기 법인세변동금액으로(Atwood et al. 2010), 비순응적 조세회피는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차이 중 기업의 이익조정(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Desai and Dharmapala 2006)으로, 순응적 조세회피는 총자산 대비 현금납부세액의 비율 중 비순응적 조세회피(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Badertscher et al. 2019)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는 기업의 조세회피가 순응적보다 비순응적 조세회피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 과세소득을 낮추면 회계이익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세회피로 인한 효익의 일부가 재무보고비용에 의해 상쇄된다. 따라서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는 총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순응적 조세회피보다 비순응적 조세회피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 논쟁에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이익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실증연구는 많지만(Atwood et al., 2010; Blaylock et al., 2015; Wartin et al., 2014),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비순응적, 순응적 조세회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과세당국이 특히 관심을 기울여 살펴봐야 할 조세회피전략 유형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순응적 조세회피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통해 적발이 가능하나, 순응적 조세회피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적발이 쉽지 않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높은 국가들은 비순응적 조세회피가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과세당국은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세회피기업의 적발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가설을 설정한다. 제3장은 변수의 측정과 연구모형, 표본구성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4장은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 II.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 1. 선행연구

#### 1)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에 관한 선행연구

재무보고와 세금신고 목적상 소득의 측정기준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쟁이 존재한다. 찬성론자들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의 혜택으로 세금신고비용의 감소, 넓은 세원·낮은 세율<sup>1)</sup>,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억제 등을 제시한다(Desai 2003, 2005, 2006; Chan et al., 2010 등).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가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이익정보의 유용성 감소 등 상당한 비용이 수반됨을 주장한다(Hanlon et al., 2009; Hanlon and Shevlin, 2005; McClelland and Mills, 2007 등).

이 분야의 실증연구들은 대체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가 이익정보의 유용성을 낮춘다는 실증적인 증거들을 보고하고 있다(Guenther and Young, 2000; Ali and Hwang, 2000; Hanlon et al., 2005, 2008; Atwood et al., 2010). Atwood et al. (2010)에 따르면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높은 국가가 이익지속성이 낮고, 당기 이익과 차기 현금흐름의 관계가 약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미래 이익 및 현금흐름 예측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자가 보고이익을 상향 조정하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고이익을 하향 조정하면 시장압력에 직면하기 때문에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예,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이다. 그러나 실증결과는 이와 반대로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가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으로 측정할) 이익조정 수준이 더 높다(Blaylock et al., 2015). Wartin et al. (2014)은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 예상과 달리 이익조정이 더 많은 이유가 상향 이익조정이 아닌 하향 이익조정 때문임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 왜 하향 이익조정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Wartin et al. (2014)의 연구결과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높은 국가의 기업들이 회계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소득만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향 이익조정을 통해 법인세부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2)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

그 동안 조세회피의 결정요인 및 결과에 관해서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대부분 회계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소득을 낮추는 비순응적 조세회피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Hanlon and Heitzman, 2010). 그러나 기업들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동시에 낮추는 거래에 참여하여 법인세부담을

1) Hanlon and Maydew(2009), McClelland and Mills(2007)는 회계이익-과세소득을 일치시킨 후 세수변동이 없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세율이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높이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Hanlon and Maydew(2009)은 세수중립적인 세율을 26%로 추정하였으며, McClelland and Mills(2007)는 세수중립적인 세율을 28~35%로 추정하였다.

낮출 수 있다. 대다수 선행연구들이 순응적 조세회피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지만, 보고이익의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법인세부담 최소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순응적 조세회피행태에 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한 연구들이 소수지만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시장압력이 낮거나 세율변동이 예상될 때 기업들이 순응적 조세전략을 채택함을 보여준다(Penno and Simon, 1986; Guenther, 1994; Maydew, 1997; Hunt et al., 1996; Klassen, 1997; Shackelford and Shevlin, 2001). 예를 들어 세율인하가 예상될 때 기업들은 세율인하 전 기간에는 보고이익을 줄이고, 세율인하 후 기간에는 보고이익을 높여 전체 기간의 법인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미국의 경우 세금 절감을 위해 LIFO를 선택하면 재무보고 목적상 LIFO 선택이 강제되어 보고이익이 하락하나, 기업들은 보고이익 하락으로 인한 시장압력에도 불구하고 세금절감을 위해 LIFO를 채택한다.

이전에는 순응적 조세회피의 인정된 측정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순응적 조세회피가 기업 실무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정확히 검증할 수 없었다. Badertscher et al. (2019)은 순응적 조세회피의 새로운 측정방법을 고안하고, LIFO/FIFO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전환, 비상장·상장기업 표본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해당 측정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 검증결과 그들이 고안한 순응적 조세회피 측정방법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 조세회피 유형을 성공적으로 잘 포착하여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Badertscher et al. (2019)은 더 나아가 그들이 개발한 순응적 조세회피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자본시장압력에 취약한 기업에서 순응적 조세회피가 적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Badertscher et al. (2019)이 제안한 순응적 조세회피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가 기업의 순응적 조세회피전략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 3) 선행연구와 차별점

경영자가 세금 절감을 위해 과세소득을 낮추면 시장압력에 직면하고, 보고이익을 높이면 높은 세금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는 조세회피 또는 이익조정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이다.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가 이익조정 억제에 효과가 있는지를 다룬 선행연구는 많지만, 조세회피 억제에 효과가 있는지를 다룬 선행연구는 드물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의 효과와 비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비순응적 조세회피는 회계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과세소득만 줄이기 때문에 시장압력이 적지만, 순응적 조세회피는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을 동시에 줄이는 거래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압력에 봉착할 위험이 높다. 그 동안의 조세회피 연구들은 기업들이 비조세비용(시장압력)이 낮은 비순응적 조세회피를 선호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순응적 조세회피의 존재를 무시하여 왔다(Hanlon and Heitzman, 2010).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회계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과세소득만 줄이는 거래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실사 경영자가 그러한 거래구조를 발견하여 조세회피전략을 실행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이러한 전략을 인지하는 순간 세법개정을 통해 차단할 것이므로 비순응적 조세회피전략의 사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본 연구는 Badertscher et al. (2019)이 제안한 순응적 조세회피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국가 간 순응적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의 국가 간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 2. 가설설정

### 1)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가 비순응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가 큰 기업들이 조세회피에 적극적이라는 실증적인 증거들을 제시한다. Mills (1998)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가 큰 기업이 국제청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세무조사 결과 추정세액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Wilson (2009)은 조세피난처 이용으로 고발된 기업이 조세피난처 이용으로 고발되지 않은 유사한 특성을 지닌 매칭기업에 비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가 유의하게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가 조세회피의 일부 요소를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기업회계와 세법 간 제도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과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예. 이익조정, 조세회피)에서 비롯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회계와 세법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제도적인 차이보다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국가의 과세당국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주된 기준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Graham et al. (2014)이 595명의 미국 기업의 조세담당임원을 대상으로 조세회피가 기업의 현금유출 감소에 상당한 효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전략을 실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62.1%의 기업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위험'이 조세회피 전략을 실행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라고 대답하였다.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격차를 늘리는 것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위험을 높이므로 이들 국가의 기업들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유발하는) 비순응적 조세회피에 소극적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회계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과세소득만 낮추는 합법적인 조세회피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낮은 국가에 비하여 비순응적 조세회피가 우세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 방향의 논리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가설 1을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귀무가설로 설정한다.

**H1**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는 비순응적 조세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가 순응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와 순응적 조세회피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전략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높은 국가는 회계기준과 세법이 차이나는 항목이 적지만, 일치도가 낮은 국가는 회계기준과 세법이 차이나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회계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과세소득만 낮추는 조세회피전략을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높은 국가의 기업들은 일치도가 낮은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보고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과세소득만 낮추는 합법적인 조세회피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비조세비용(보고이익 하락으로 인한 시장압력)을 감수하고자라도 보고이익과 과세소득을 모두 낮추는 순응적 조세회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조세회피전략의 '적발가능성' 측면에서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차이는 조세회피 적발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의 기업들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 순응적 조세회피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회계와 세법이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제도적인 차이로 인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업회계와 세법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제도적인 차이보다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법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조세회피의 징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와 조세회피 간 양(+)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Mills, 1998; Wilson, 2009). 기업회계와 세법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의 과세당국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가 큰 기업이 조세회피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이므로 이들 국가에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유발하는) 비순응적 조세회피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 순응적 조세회피에 비해 적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법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의 기업들은 조세회피 적발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높은 비조세비용(시장압력)에도 불구하고,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 순응적 조세회피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순응적 조세회피는 회계이익의 감소를 초래하여 재무보고비용을 발생시키므로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차이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모든 상장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순응적 조세회피를 기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순응적 조세회피수준을 결정짓는 영향력 있는 변수가 아닐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가설 2를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귀무가설로 설정한다.

**H2**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는 순응적 조세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III. 연구방법론

#### 1. 변수 측정

##### 1)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BTC) 측정

본 연구는 국가별-연도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를 Atwood et al. (2010)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Atwood et al. (2010)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를 주어진 국가-연도에서 세전이익의 변동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당기 법인세비용 변동금액으로 정의하였다. 그 이유는 회계상 세전이익이 특정 금액으로 주어졌을 때, 과세소득 보고에 유연성을 많이 허용하는 국가들이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낮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국가별-연도별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도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먼저 국가별-연도별로 식 (1)을 추정한 후, 평균 제곱근 편차(Root Mean Squared Errors; RMSE)를 계산한다. 내림차순 정렬을 사용하여 해당 연도에 RMSE가 가장 큰 국가에 0순위를, RMSE가 가장 작은 국가에 (n-1) 순위를 부여한 후, (n-1)로 나눈다. 따라서 BTC 측정순위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높다.

$$CTE = \theta_0 + \theta_1 PTBI + \theta_2 ForPTBI + \theta_3 DIV + \epsilon \quad (1)$$

여기에서

CTE	=	당기 법인세비용 (Item #23-Item #25)
PTBI	=	세전이익 (Item 21)
ForPTBI	=	국외 세전이익 [외국 법인세비용(Item #51)/총 법인세비용(Item #23)×PTBI]
DIV	=	총배당(Item 34)
$\epsilon$	=	잔차항

##### 2) 비순응적 조세회피(NCTAV) 측정

본 연구는 Desai and Dharmapala(2006)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연도별-국가별 비순응적 조세회피수준을 측정한다. Desai and Dharmapala(2006)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중 기업의 이익조정(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비순응적 조세회피를 측정하였다.

$$BTD = \alpha_0 + \alpha_1 TA + \epsilon \quad (2)$$

여기에서

BTD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기초 총자산;
TA	=	총발생액/기초 총자산;
$\epsilon$	=	잔차항(=비순응적 조세회피).

##### 3) 순응적 조세회피(CTAV) 측정

본 연구는 Badertscher et al. (2019)이 고안한 방법에 따라 연도별-국가별 순응적 조세회피수준을 측정한다. Badertscher et al. (2019)에 따른 순응적 조세회피의 측정방법은 현금납부세액을 전기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에 기초하고 있다.<sup>2)</sup> 총자산 대비 현금납부세액의 비율은 순응적 조세회피뿐 아니라 비순응적 조세회피에 의해서도 낮아질 수 있다.<sup>3)</sup> 비순응적 조세전략이 총자산 대비 현금납부세액의 비율(중속변

1) 당기 현금납부세액을 당기 총자산이 아닌 전기 총자산으로 나누는 이유는 당기거래(예, 이익조정)가 동 비율의 분모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암묵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유사한 자산규모를 가진 기업은 유사한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2) 예를 들어 법인세율이 30%일 때 \$100의 자산처분손실과 \$100의 가속상각의 세금절감효과는 \$30로 동일하나, 전자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모두 줄이는 순응적 조세회피에 해당하나 후자는 회계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소득만 줄이는 비순응적 조세회피

수)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Badertscher et al. (2019)은 양(+)과 음(-)의 BTD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순응적 조세회피로 측정하였다.<sup>4)</sup>

$$TAX = \beta_0 + \beta_1 BTD + \beta_2 NEG + \beta_3 BTD \times NEG + \beta_4 NOL + \beta_5 \Delta NOL + \epsilon \quad (3)$$

여기에서

TAX	=	현금납부세액/기초 총자산;
BTD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기초 총자산;
NEG	=	BTD < 0이면 1, 아니면 0;
NOL	=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1, 아니면 0;
$\Delta NOL$	=	해당 연도의 이월결손금의 변동/기초 총자산;
$\epsilon$	=	잔차항 (순응적 조세회피).

##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비순응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식 (4)과 같다. 식 (4)에서 종속변수인 NCTAV는 비순응적 조세회피 변수로 국가별-업종별-연도별로 식 (2)을 추정한 후, 국가별-연도별 식 (2)의 잔차의 중간값으로 측정한다.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높을수록 비순응적 조세회피가 줄어들면  $\gamma_1$ 이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통제변수는 Blaylock et al. (2015)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NCTAV = \gamma_0 + \gamma_1 BTC + \gamma_2 OIR + \gamma_3 ENF + \gamma_4 OC + \gamma_5 LT + \gamma_6 SIZE + \gamma_7 CI + \gamma_8 FM + \gamma_9 GDP + \gamma_{10} INF + \text{Year Fixed Effect} + \epsilon \quad (4)$$

여기에서

NCATV	=	비순응적 조세회피 측정치(국가별-연도별 식 (2)의 잔차의 중간값);
BTC	=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국가별-연도별 식 (1)의 RMSE의 내림차순 순위등급)/(n-1)];
OIR	=	투자자권리보호[La porta et al. (1998)에서 생성한 소액주주보호장치지수];
ENF	=	법집행[La Porta et al. (1998)에서 사용한 3가지 법률 변수, 사법제도의 효율성, 법 규정의 평가, 부패지수의 평균값];
OC	=	소유집중도(상위 10대 비상장, 비금융회사의 3대 최대주주의 보통주지분율의 중간값);
LT	=	성문법 국가는 1, 불문법 국가는 0;
SIZE	=	해당 국가-연도의 총매출액(\$백만 단위)의 중간값의 자연로그값;
CI	=	해당 국가-연도의 자본집약도(장기자산/총자산)의 중간값;
FM	=	해당 국가-연도의 제조업체 비율;
GDP	=	해당 국가-연도의 GDP(\$10억 단위);
INF	=	해당 국가의 연간 소비자가격변동률;
$\epsilon$	=	오차항.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순응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식 (5)과 같다. 식 (5)에서 종속변수인 CTAV는 순응적 조세회피 변수로 국가별-업종별-연도별로 식 (3)을 추정한 후, 국가별-연도별 식 (3)의 잔차의 중간값으로 측정한다.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높을수록 순응적 조세회피가 증가하면  $\delta_1$ 이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위 모형에서 NEG와 BTD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이유는 양(+)의 BTD와 음(-)의 BTD가 현금납부세액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의 BTD는 비순응적 조세전략의 결과일 수 있는 반면 음(-)의 BTD는 이연법인제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변동과 같은 다른 요인들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Badertscher et al. (2019)은 이월결손금 보유여부와 이월결손금의 변동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이월결손금 사용이 현금납부세액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것이 순응적 조세회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된다. 기타 통제변수는 Blaylock et al.(2015)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CTAV = \delta_0 + \delta_1BTC + \delta_2OIR + \delta_3ENF + \delta_4OC + \delta_5LT + \delta_6SIZE + \delta_7CI + \delta_8FM + \delta_9GDP + \delta_{10}INF + \text{Year Fixed Effect} + \epsilon \tag{5}$$

여기에서  
 CATV = 순응적 조세회피 측정치;  
 기타 변수의 정의는 식 (4) 참조

### 3.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19년까지 Compustat Global Vintage file에서 회귀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춘 기업-연도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선행연구에 따라 은행 및 금융기관은 표본에서 제외한다 (Leuz et al. 2003). 또한 각 국가-연도가 최소한 40개 이상의 기업-연도 자료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Blaylock et al., 2015). 본 연구는 분석대상 국가를 Porta et al.(1998)에서 연구된 국가들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각 국가의 법률 환경 및 투자자 보호 수준을 Porta et al.(1998)에서 제시한 값으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음(-)의 세전이익을 가지거나 당기 법인세비용이 음(-)인 표본을 제외하였는데, 이러한 표본들이 당기 법인세비용 숫자를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Hanlon et al, 2005).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19년까지 39개국 793개의 국가-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①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비순응적, 순응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과 ②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국가의 법집행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국가별 표본구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국가별 표본구성

국가	빈도	비중(%)
호주	24	3.03
오스트리아	19	2.40
벨기에	18	2.27
브라질	23	2.90
스위스	22	2.77
칠레	20	2.52
독일	22	2.77
덴마크	21	2.65
이집트	8	1.01
스페인	15	1.89
핀란드	21	2.65
프랑스	23	2.90
영국	24	3.03
그리스	16	2.02
홍콩	24	3.03
인도네시아	23	2.90
인도	24	3.03
아일랜드	21	2.65
이스라엘	22	2.77



이탈리아	15	1.89
요르단	17	2.14
일본	21	2.65
한국	23	2.90
스리랑카	15	1.89
멕시코	21	2.65
말레이시아	24	3.03
나이지리아	15	1.89
네덜란드	22	2.77
노르웨이	22	2.77
뉴질랜드	20	2.52
파키스탄	23	2.90
페루	20	2.52
필리핀	22	2.77
포르투갈	15	1.89
싱가포르	24	3.03
스웨덴	23	2.90
태국	24	3.03
터키	17	2.14
남아프리카공화국	20	2.52
합계	793	100.00

본 연구는 극단치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였다.

## IV. 실증분석 결과

### 1. 기술통계량

〈Table 2〉는 회귀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비순응적 조세회피와 순응적 조세회피의 측정치인 NCTAV와 CATV의 평균값은 각각 0.005와 -0.000이고, 표준편차는 각각 0.018과 0.000으로 비순응적 조세회피 수준은 국가-연도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반면 순응적 조세회피 수준은 편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BTC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순위변수로 평균값은 0.5이다. OIR은 투자자권리보호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0에서 5 사이의 값을 가지며, 평균값은 3.053으로 나타났다. ENF는 법집행의 엄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2,877에서 10,0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평균값은 7.388로 나타났다. OC는 해당 국가-연도의 소유집중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상위 10대 비상장, 비금융회사의 3대 최대주주의 보통주지분율의 중간값의 평균은 44.2%로 계산되었다. LT는 성문법 국가 해당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전체 표본의 24.5%가 성문법 국가로 구성되었다. SIZE는 해당-국가 연도의 총매출액(백만 달러)의 중간값의 자연로그값으로 평균값은 6.461로 나타났다. FM은 제조업체 비율로 본 연구에 사용된 국가들의 제조업체 비율은 평균 37.8%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국가들의 GDP는 평균 8,930억 달러이고, 소비자가격변동률은 평균 3.257%로 조사되었다.

**Table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솟값	중간값	최대값
NCTAV	0.005	0.018	-0.011	0.000	0.122
CTAV	-0.000	0.000	-0.001	0.000	0.001
BTC	0.500	0.298	0.000	0.500	1.000
OIR	3.053	1.313	0.000	3.000	5.000
ENF	7.388	2.207	2.877	7.717	10.000
OC	0.442	0.158	0.000	0.500	0.680
LT	0.245	0.430	0.000	0.000	1.000
SIZE	6.461	2.494	0.068	6.097	13.569
CI	0.584	0.233	0.013	0.601	0.976
FM	0.378	0.070	0.235	0.381	0.536
GDP	893.061	1142.407	24.388	403.347	5850.670
INF	3.257	3.320	-1.371	2.365	16.662

Notes: 1. 변수의 정의는 식 (4)와 식 (5) 참조

(Table 3)은 회귀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NCTAV는 BTC, OIR, ENF, FM, GDP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OC, SIZE, INF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가 높고, 투자자권리보호가 잘 되며, 법집행이 강력하고, 제조업체 비율이 높으며, GDP가 높은 국가에서 비순응적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반면 소유집중도가 높고 기업규모가 크고 소비자자격변동률이 큰 국가는 비순응적 조세회피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CTAV는 OIR 및 FM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집행이 강력하고, 제조업체 비율이 높으면 순응적 조세회피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NCTAV	CTAV	BTC	OIR	ENF	OC	LT	SIZE	CI	FM	GDP
CTAV	-0.04 (0.21)										
BTC	0.25 (0.00)	-0.04 (0.30)									
OIR	0.18 (0.00)	-0.12 (0.00)	-0.16 (0.00)								
ENF	0.30 (0.00)	0.01 (0.86)	0.30 (0.00)	0.05 (0.16)							
OC	-0.32 (0.00)	-0.03 (0.46)	-0.13 (0.00)	-0.22 (0.00)	-0.34 (0.00)						
LT	0.00 (0.99)	0.06 (0.09)	-0.01 (0.70)	-0.22 (0.00)	0.47 (0.00)	-0.34 (0.00)					
SIZE	-0.45 (0.00)	0.04 (0.31)	-0.61 (0.00)	-0.04 (0.27)	-0.49 (0.00)	0.10 (0.00)	0.15 (0.00)				
CI	0.05 (0.16)	0.03 (0.45)	-0.04 (0.21)	-0.04 (0.25)	0.17 (0.00)	0.10 (0.00)	0.07 (0.04)	-0.01 (0.73)			
FM	0.11 (0.00)	-0.18 (0.00)	0.17 (0.00)	0.05 (0.12)	-0.07 (0.05)	-0.05 (0.14)	0.11 (0.00)	-0.03 (0.38)	-0.02 (0.51)		
GDP	0.14 (0.00)	0.02 (0.52)	-0.17 (0.00)	-0.01 (0.78)	0.18 (0.00)	-0.32 (0.00)	0.25 (0.00)	0.11 (0.00)	-0.01 (0.80)	-0.09 (0.01)	
INF	-0.14 (0.00)	0.00 (0.96)	-0.24 (0.00)	0.04 (0.27)	-0.58 (0.00)	0.25 (0.00)	-0.31 (0.00)	0.27 (0.00)	-0.10 (0.00)	0.04 (0.22)	-0.16 (0.00)

Notes: 1. 변수의 정의는 식 (4)와 식 (5) 참조  
2. 괄호 안은 p값

## 2. 회귀분석결과

### 1) 가설 검증

〈Table 4〉는 가설 1에 대한 검증결과로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가 비순응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회귀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BTC의 회귀계수는 0.010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높은 국가가 일치도가 낮은 국가에 비하여 비순응적 조세회피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OIR, ENF, SIZE, FM, GDP, INF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 반면 OC와 LT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권리보호와 법집행이 강력하며, 소유집중도가 낮고, 불문법을 가지고 있고, 기업규모가 크며, 제조업체비율과 GDP가 높고, 소비자가격변동률이 큰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비순응적 조세회피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 R<sup>2</sup>는 0.229로 나타났다.

**Table 4.**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가 비순응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모형 1 (종속변수=NCTAV)
BTC	0.010*** (4.260)
OIR	0.001*** (2.795)
ENF	0.003*** (7.102)
OC	-0.028*** (-6.158)
LT	-0.010*** (-5.619)
SIZE	0.000** (2.351)
CI	0.004 (1.467)
FM	0.033*** (3.696)
GDP	0.000*** (2.926)
INF	0.001** (2.477)
상수항	-0.039*** (-4.577)
N	793
Adj. R <sup>2</sup>	0.229
F값	8.135***

Notes: 1. 변수의 정의는 식 (4) 참조

2. p: \*\*\*<0.01, \*\*<0.05 and \*<0.10.

〈Table 5〉는 가설 2에 대한 검증결과로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가 순응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회귀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BTC의 회귀계수는 음(-)이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가 순응적 조세회피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OIR, OC, FM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집행이 강력하고 소유집중도가 높으며 제조업체 비율이 높은 국가가 순응적 조세회피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5.**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가 순응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모형 1 (종속변수=CTAV)	
BTC	-0.000	(-0.802)
OIR	-0.000***	(-3.232)
ENF	-0.000	(-0.692)
OC	-0.000**	(-2.001)
LT	0.000	(1.490)
SIZE	-0.000	(-1.448)
CI	0.000	(0.630)
FM	-0.001***	(-4.849)
GDP	-0.000	(-0.971)
INF	0.000	(0.982)
상수항	0.001***	(3.437)
N	793	
Adj. R <sup>2</sup>	0.054	
F값	2.380***	

Notes: 1. 변수의 정의는 식 (5) 참조  
 2. p: \*\*\*<0.01, \*\*<0.05 and \*<0.10.

**2) 추가분석결과**

국가의 조세회피수준은 법집행의 엄격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Table 6>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법집행의 엄정성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Table 6>에서 모형 1은 가설 1을 검증한 것이고, 모형 2는 가설 2를 검증한 결과이다. SENF는 법집행이 강력한 국가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분석결과 모형 1에서 SECF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반면 SENF\*BTC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법집행이 강력한 국가는 비순응적 조세회피가 적지만,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도가 높을 때는 이러한 효과가 반감됨을 의미한다.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는 법집행이 약해도 비순응적 조세회피가 쉽게 적발되기 때문에 강력한 법집행이 비순응적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이들 국가에서 반감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속변수로 순응적 조세회피 측정치를 사용한 모형 2의 경우 SENF와 SENF\*BTC의 회귀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법집행이 미치는 영향

변수명	모형 1(종속변수=NCTAV)		모형 2(종속변수=CTAV)	
SENF	-0.008**	(-2.397)	-0.000	(-0.055)
BTC	0.000	(0.093)	-0.000	(-0.304)
SENF*BTC	0.032***	(6.866)	-0.000	(-0.571)
OIR	0.001***	(2.636)	-0.000***	(-3.128)
OC	-0.031***	(-7.008)	-0.000**	(-1.969)
LT	-0.005***	(-3.022)	0.000	(1.393)
SIZE	-0.000	(-0.191)	-0.000	(-1.318)
CI	0.003	(1.395)	0.000	(0.727)
FM	0.028***	(3.196)	-0.001***	(-4.834)
GDP	0.000***	(4.395)	-0.000	(-1.045)
상수항	-0.012	(-1.548)	0.000***	(3.386)
N	793		793	
Adj. R <sup>2</sup>	0.284		0.055	
F값	10.244***		2.352***	

Notes: 1. SENF = 해당 연도-국가의 ENF 값이 표본의 중간값보다 크면 1, 아니면 0. 기타 변수의 정의는 식 (4) 또는 식 (5) 참조  
 2. p: \*\*\*<0.01, \*\*<0.05 and \*<0.10.

## V. 결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와 이익의 질의 관계에 관해서는 그 동안 재무회계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보고이익을 높이려는 기업의 상향 이익조정 유인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기업의 조세회피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이 분야의 실증연구들은 대체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가 이익의 질을 낮춘다는 일관된 증거들을 보고하고 있다(Guenther and Young, 2000; Ali and Hwang, 2000; Hanlon et al., 2005, 2008; Atwood et al., 2010).

그러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는 재무보고의 질뿐 아니라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 및 수단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가 재무보고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와 달리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가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순응적 조세회피와 비순응적 조세회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순응적 조세회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모두 낮추는 전략인 반면 비순응적 조세회피는 회계이익은 그대로 두고 과세소득만 낮추어 세부담 최소화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순응적 조세회피는 필연적으로 재무보고비용을 수반하나, 비순응적 조세회피는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무보고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순응적·비순응적 조세회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기업이 재무보고비용을 부담하고라도 과세당국의 적발을 피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세회피를 시도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Compustat Global Vantage에서 추출한 34개 국가의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가 기업의 순응적·비순응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회계이익-과세소득 일치도는 세전이익의 변동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당기 법인세비용 변동금액으로 측정하였다(Atwood et al., 2010). 비순응적 조세회피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중 기업의 이익조정(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으로(Desai and Dharmapala, 2006), 순응적 조세회피는 양(+)과 음(-)의 BTD로 설명되지 못하는 총자산 대비 현금납부세액의 비율로 측정하였다(Badertscher et al., 2019). 본 연구의 주요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증결과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가 비순응적 조세회피수준이 높고, 순응적 조세회피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는 기업의 조세회피가 비순응적 조세회피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 과세소득을 낮추면 회계이익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세회피로 인한 효익의 일부가 재무보고비용에 의해 상쇄된다. 따라서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는 총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순응적 조세회피보다 비순응적 조세회피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의 차별적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비순응적 조세회피와 순응적 조세회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의 기업들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재무보고비용과 시장압력을 낮추기 위하여 비순응적 조세회피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 비순응적 조세회피의 측정치가 조세회피기업을 선정하는 데 중요한 선별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 또한 제공한다. 이러한 학술적, 실무적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따라 순응적 조세회피와 비순응적 조세회피를 측정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의 측정방법에 측정오류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측정오류가 본 연구의 실증결과와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순응적·비순응적 조세회피 결과가 해당 국가의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가 순응적 조세회피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이유에 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향후의 연구는 국가별 재무보고비용의 차이 또는 자본시장의 발달정도가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일치와 순응적 조세회피수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Ali, A., and L. Hwang (2000), "Country-specific Factors related to Financial Reporting and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Data",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8(1), 1-21.
- Atwood, T. J., M. S. Drake and L. A. Myers (2010), "Book-tax Conformity, Earnings Persistence and the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and Future Cash Flow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1), 111-125.
- Badertscher, B. A., S. P. Katz, S. O. Rego and R. J. Wilson (2019), "Conforming Tax Avoidance and Capital Market Pressure", *The Accounting Review*, 94(6), 1-30.
- Blaylock, B., F. Gaertner and T. Shevlin (2015), The Association between Book-tax Conformity and Earnings Management.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20(1), 141-172.
- Chan, K. H., K. Z. Lin and P. L. L. Mo (2010), "Will a Departure from Tax-based Accounting Encourage Tax Noncompliance? Archival Evidence from a Transition Econom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1), 58-73.
- Desai, M. A. (2003), "The Divergence between Book Income and Tax Income", *Tax Policy and the Economy*, 17, 169-206.
- Desai, M. A. (2005), "The Degradation of Reported Corporate Profit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4), 171-192.
- Desai, M. A. and D.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 145-179.
- Graham, J. R., M. Hanlon, T. Shevlin and N. Shroff (2014), "Incentives for Tax Planning and Avoidance: Evidence from the Field", *The Accounting Review*, 89(3), 991-1023.
- Guenther, D. A. (1994), "Earnings Management in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 Changes: Evidence from the 1986 Tax Reform Act", *The Accounting Review*, 69(1), 230-243.
- Guenther, D. A. and D. Young (2000), "The Association between Financial Accounting Measures and Real Economic Activity: A Multinational Stud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9(1), 53-72.
- Hanlon, M. (2005), "The Persistence and Pricing of Earnings, Accruals, and Cash Flows When Firms Have Large Book-Tax Differences", *The Accounting Review*, 80(1), 137-166.
- Hanlon, M. and E. L. Maydew (2009), "Book-tax Conformity: Implications for Multinational Firms", *National Tax Journal*, 62(1), 127-153.
- Hanlon, M. and T. Shevlin (2005), "Book-tax Conformity for Corporate Income: An Introduction to the Issues", *Tax Policy and the Economy*, 19, 101-134.
- Hanlon, M. and J. Slemrod (2009), "What Does Tax Aggressiveness Signal? Evidence from Stock Price Reactions to News about Tax Shelter Involv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1), 126-141.
- Hanlon, M. and S. Heitzman (2010),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2), 127-178.
- Hunt, A., S. E. Moyer and T. Shevlin (1996), "Managing Interacting Accounting Measures to Meet Multiple Objectives: A Study of LIFO Firm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1(3), 339-374.
- Jenkins, N. and M. Pincus (1998), "LIFO versus FIFO: Updating What We Have Learned", University of Iowa working paper.
- Klassen, K. J. (1997), "The Impact of Inside Ownership Concentration on the Trade-off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72(3), 455-474.
- Leuz, C., D. Nanda and P. D. Wysocki (2003), "Earnings Manag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9(3), 505-527.
- Maydew, E. L. (1997), "Tax-induced Earnings Management by Firms with Net Operating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5(1), 83-96.
- McClelland, J. and L. F. Mills (2007), "Weighing Benefits and Risks of Taxing Book Income", *Tax Notes*, 115(7).

- Mills, L. F. (1998), "Book-tax Differences and Internal Revenue Service Adjust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6(2), 343-356.
- Penno, M. and D. T. Simon (1986), "Accounting Choices: Public versus Private Firm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13(4), 561-569.
- Shackelford, D. A. and T. Shevlin (2001), "Empirical Tax Research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1(1), 321-387.
- Watrin, C., N. Ebert and M. Thomsen (2014), "Book-tax Conformity and Earnings Management: Insights from European One- and Two-book System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6(2), 55-89.
- Wilson, R. J. (2009), "An Examination of Corporate Tax Shelter Participants", *The Accounting Review*, 84(3), 969-999.
- 구자은, (2013),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정도가 이익지속성 및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0(3), 99-138.
- 장지경, (2014),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 변화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국제회계연구*, 58, 218-242.